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마지막 때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월 2일 (토) 제 156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칼럼



새해의 기원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새해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동천의 환한 햇빛이 저 깊은 심연을 헤집고 붉으스레 떠오르는 모습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깊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나간 한 해에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아쉬움 뒤돌아보며 주님만이 만복을 주실 주권자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복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어수선하게 변하고 또 변하더라도 어제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소망을 주옵소서.

진흙으로 뒤엎긴 고달픈 현실을 내려다보지 말고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늘푸른 창공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빚진 사랑을 갚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못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먼저 주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건강을 주옵소서.

모세처럼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전된 몸을 소중하게 다루며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평화를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이 가라앉게 하옵소서. 가정의 불화가 해소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파벌도 잠잠하게 하옵소서. 전쟁, 테러, 폭력으로 얼룩진 지구촌 구석구석에 평화를 주옵소서. 중동에도, 동남아에도, 북한에도, 이 미주에도 당신의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 신년 초대시



김상모 목사 (UMC)

새해 새 소망

새해 새 아침
빛으로 오신 주님
캄캄한 북녘 하늘
어둠을 걷으시고
새 빛을 밝히시니
주의 광명 찬양하

새해 새 소망
기도하는 가슴마다
주의 빛 가득가득
부으시고 채우소서
어둠을 몰라내고
축복받은 주의가정
주의 은혜 감사하라

새해 새 소망
새 사랑되기 원하오니
감추어진 죄와 허물
깨끗이 씻어주소서
뜻뜻한 생명으로
기쁨나게 하소서

주의 빛 사랑의 빛
어둠을 몰라내니
심자가 빛 승리의 빛
감사하고 찬양하세

ATS 인가 온라인 100%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성서학 학사 /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 목회학 박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 석사
유아교육, 가정상담 수료증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3면

신·년·설·교
조일래 목사(수정교회)



4-5면

신년메시지
2016년 새해를 맞으며...



6면

교회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안
김만형 목사



7면

2세 교육은 가장 강력한 선교
이희갑 목사



8면

청소년 사역은 우리의 미래...
스티브 황 목사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rd Missional Church Seminar

2016.3.14(월)-16(수)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The Church Called and Sent to the World



한국일 교수

선교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논문: 선교적 교회론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등
역사: 선교학 사전(공역)
저서: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들



배헌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DSMC 원장
KWMC 공동의장
NCKPC/PCUSA 총회장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어떻게
리더십은 어떻게



신광섭 교수

선교적교회
Intercultural Studies
Visiting Professor of Missional Church Education,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노승환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박태은 장로

주 예수교회 장로
지역사회 선교사역
선교위원장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영상(Practicum) 노숙자 숙박 사역(CARITAS/Homeless Shelter), 노숙자 급식 사역(Monroe Park/Soup Kitchen), 빈민촌 주택보수(Project: Homes/Renew Crew), 산골빈민촌사역(Appalachian Service Project), 지역사회축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Korean Food Festival) 숙박 Four Point Sheraton Hotel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PCUSA)

협력 센트럴 신학대학원 (CBTS/D.Min Program)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 예수교회/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7509 | WWW.LJKC.ORG



시론

사슴나무골에서(25): 2016년 새해의 영적 기상도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필자가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년여 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와 호수, 강과 농수로마저 말라붙어 버렸고 댐마저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식수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무리하게 지하수를 파올린 관계로 증가 주 지역은 지반이 계속 함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푸른 잔디밭 정원을 자랑하던 주택들은 반 강제 및 자발적 절수로 잔디밭이 누렇게 타 죽어 가자 아예 가뭄 대비 절수형 관상식 물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제목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함시켜서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12월 초부터는 제법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간 고지대에는 눈이 제법 많이 쌓인 모습이 멀리 도심에서도 관측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엘니뇨현상으로 높아진 바다물의 수온 상승 때문에 사상 최대의 폭우를 동반한 홍수가 자주 전역에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연일 발표하고 있어 산간 지역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해안가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 전후부터 4월말까지는 유명한 던지니스 크랩(게)이 많이 잡혀서 싱싱한 살아있는 게를 해산물코너 수족관에서 직접 구입해 써서 먹는 맛이 일품이었는데 올해는 수온 상승으로 인해 게에서 독소가 검출되었고 캘리포니아 연안의 모든 게잡이 조업이 중단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부는 흑한이나 폭설이 예상되었던 연말에 따뜻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남부지역에는 한 겨울에 홍수와 토네이도 같은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우리가 사는 미국 땅마저 이처럼 가뭄과 홍수, 지진과 토네이도, 환경 공해와 기상 이변, 등으로 오염 및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북미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미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아마존의 열대수림 지역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어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 및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유럽의 알프스 산맥, 등 주요 고산지대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도시 전체를 모래로 덮어서 지도상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도 볼 수 있었던 러시아의 아랄해, 바이칼 호수마저 바닥 드러내며 심지어는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라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장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formless and empty(NIV)라고 번역했지만,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토후"와 "보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는 황폐한 황무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 땅을 모든 생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비옥한 축복의 땅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던 인간들이 생명의 땅을 다시 혼돈하고 공허한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역행하는 반창조(Anti-creation or De-creation)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의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빠져 죽는, 파괴함으로 파괴당하는 파멸의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 세속화되어가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벗어나 멸망의 넓은 문으로 향해가는 어리석은 교회들과 어떤 영적 가뭄과 홍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참된 교회들이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뚜렷한 징조는 양과 염소, 알곡과 쭈정리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삼박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새해의 영적 기상도를 잘 살펴서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이코노미스트, '2016년 세계 전망' 통해 지구촌 변화 예측 보도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12월이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CEO,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을 대거 필진으로 대륙별,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미 120개국 10여 개 언어로 전 세계에 번역, 동시 출간되면서 최고의 미래 전망으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흐름을 주도할 2016년의 키워드로 비통함(Woes)과 여성(Women), 승리(Wins), 세 가지를 뽑았다.

첫 번째로 뽑은 '비통함'은 세계의 경기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성적이 다소 실망스러울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세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의 수익도 실망을 안겨줄 것이며, 이러한 비애는 불행하게도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와 여타 황폐해진 난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아랍 지역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두 번째로 뽑은 '여성'은 2016년에 이뤄질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의 중심에 바로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넷 옐런 의장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이 주목받고 있다.

세 번째로 뽑은 '승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 해 동안 다채롭게 펼쳐질 스포츠 축제를 예견하는 말이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 그리고 프랑스 '유로 2016 축구경기', 인도 'T20 크리켓 월드컵 경기' 등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요인으로 인해 시야가 잔뜩 흐린 2016년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적 돌발변수다. 유럽연합(EU) 와해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Brexit)가 내년 중 국민투표를 거쳐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올 초부터 불거진 난민유입 사태는 내년부터 유럽 사회와 경제에 본격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세계 60개국을 향해 선전포고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조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최근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 내년엔 세계 경제



(사진: 이코노미스트)

된다.

난민 사태도 유럽을 뒤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 대규모 난민유입에 따른 사회적 압력과 EU 회원국 간 균열이 이미 불거진 가운데 일부 국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유럽으로 오는 난민의 80%가 거쳐 가는 그리스의 경우 난민유입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압력이 국가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독일의 경우 난민에 대한 지원금이 경기부양 효과를 유발하면서 단기적인 성장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티그롭은 "2016년은 경제보다는 정치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브렉시트와 난민 사태라는 변수를 안고 있는 유럽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테러 위협은 내년에도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IS가 최근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경고한데다 IS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간 세력 과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2016년의 테러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로 인한 소비위축과 단기적인 시장 충격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슈퍼 엘니뇨'가 내년에 한층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적 여

2016년 키워드: 비통함(Woes), 여성(Women), 승리(Wins)

세계경기 먹구름...EU와해 조짐, IS, 난민, 미-중 지정학적 경쟁 등

를 위협할 '블랙스완(black swan)'을 발표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블랙스완이란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효과를 가져오는 일을 의미한다.

집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당초 오는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

웠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3·4분기 중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캐머런 총리는 EU 개혁에 관한 영국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다, 파리 테러와 난민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서 또 반EU 정서가 고조되고 있어 브렉시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여내

찾난 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영국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경우 파장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

파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3면으로 계속)

[정정] 본지 성탄특집호 제 1564호 3면 성탄설교의 필자 김현 목사는 캄보디아선교사로, 캄보디아국제신학대학 대학원장과 애들란타개혁신학교(PCA) 박사논문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징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개교 30주년 기념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MBA - 리더십 전공
Doctor of Leadership - 사역리더십 전공

MBA Degree (48 Credit hours) Leadership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Degree Program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DL Equivalent Program
(연구분야: 조직, 교육, 경영 리더십)
자격: 1. 학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자 (전공에 관계없음)
2. 연구과정: 수업은 동일하며 전문분야 종사자, 학력제한 없음.

2016년 1월 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는 학생 중 20명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학위취득 방법
1) 미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발행**
2) 직장파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으로 학점 취득 중 언제든지 미국에 유학와서 남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취득하고 1년 동안은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기회 가능
3)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을 통해 학점취득 가능
4)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학위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입니다
미국연방정부 교육부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USDS J-1 Visa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전문가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전공무관) 인턴십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십을 통해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좋은 기회: 선교사 안식년에 J-1 비자를 받아 본교 세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J-1 VISA 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희철교수 (hcclee@midwest.edu)께 문의 바람.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636) 327-4645. usa@midwest.edu

신년특집

신·년·설·교

하나님의 소원

본문 : 사도행전 1:4-9

조일래 목사(수정교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하기만 했었다면, 새해에는 좀 더 성숙한 자녀답게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쓴다면 아주 멋지고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도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개개인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원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필요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창 1:28-3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 인간이 복 받고 사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탄으로부터 오는 결핍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2.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루고 얻으려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값으로 멸망 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28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제물,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꼭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우리의 거룩함과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2:8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는 자녀가 사람답게 살며, 성공하고 효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5:48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1:15-16)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큰 계명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답게 변화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서만 만족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가치관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길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비탄을 받게 되었고, 전도의 문도 닫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욕, 기도, 열정도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죽었거나 병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 쳐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받은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며 승리하시는 성도다운 성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우리를 통한 온 세상사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신일이 12제자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마28:19-20)을 내리십니다. 이는 제자들과 먼저 믿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엄명이자 대위임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전하여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크게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죽을 때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찍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또 구원받은 자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귀찮게 여기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진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1-2)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나로 인하여 남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소원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친척과 이민족과 세계만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우리의 성령충만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힘쓰고 애쓰다 할지라도, 우리

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과 승리의 삶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세례,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말씀이 자기 맘에 들면 믿어지고 맘에 들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좀 쉬운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전도가 그렇게 귀찮고 싫었는데 성령세례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성령세례 받으면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성령세례, 성령충만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과 감격, 그리고 승리의 역사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써의 거룩함과 승리, 구원 받은 자를 통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 즉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충만을 받을 때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서 다 성령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복된 새해, 복된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2면에서 계속)

블룸버그통신은 최악의 엘니뇨 여파로 심각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이 세계 각지를 강타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2016년은 기존의 국제정치를 넘어서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의 이슬람국가(IS)가 2014년 6월 29일 창립을 선포한 이래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이 됐고, 급기야 2015년 11월 13일 130명을 살해하는 파리테러를 자행했다. 파리테러는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인류가 공히 대처해야 하는 위협으로 정의됐다. 그러나 테러의 근본 원인으로 운위(云謂)되는 세계화에 따른 빈곤, 강대국 국제정치에 대한 반발, 중동국가들의 복잡한 분규 등의 요인들은 여전히 해결이 난방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12일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는 196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교토협약을 대체하는 포괄적 협약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다양한 의무사항에 합의한 것이다. 테러와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모든 국가들을 위협하는 의제가 됨에 따라 근대적 국제정치는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파리는 그러한 추세들을 명백히 보여준 세계적 도시가 되었다.

여기에 가열되는 지정학적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IS 대처나 기후변화에는 지구 강대국들이 공동의 위협을 두고 협력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이익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도모하였고, 시리아 사태를 발판으로 중동 정세에 개입했다. 시리아 반군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미국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더욱이 파리테러 이후, 이슬람국가의 격퇴를 위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해지



는 가운데 러시아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강화

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경쟁 역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인공섬 건설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아시아 국가들과의 대중 전략협력을 강화했다. 미·중 역시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들은 창조주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2016년을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해가 떠서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가 아침이 오는 이 신실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느낀다.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위초도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 일상을 살아간다!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1월 9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신년특집

신년메시지 2016년 새해를 맞으며...

기독교운동, 말씀운동, 사랑운동 통해 연합 뉴저지교협 회장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



201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동포들 위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경제적 불황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축고 어두운 현실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경륜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 그 첫 발걸음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미움과 시기과 절망과 낙심, 세속적인 이기적인 것들을 다 벗어 버리고 새 마음을 품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절망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독교운동, 말씀운동, 사랑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세상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듯이 서로 힘을 합하고 연합하여 함께 일어나 세상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기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주시는 그 분 믿고 힘차게 출발! 시카고교협회장 이철원 목사(엑스터스터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과 눈물로 애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철원 목사 임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어려울 때 뉴딜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 4선까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은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트루만(Harry S. Truman) 부통령이었습니다.

트루만 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며 트루만 부통령처럼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시카고 지역에 있는 220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온 성도님들도 능력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한해를 살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한해를 결산할 그날에 많은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자! 메릴랜드교협회장 김병은 목사(한사랑교회)



사람은 육,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기도 등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풍요로운 정신세계와 건강을 위해서 독서와 정신적인 수양과 문화 활동이 필요로 하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는 건전한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이 꼭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건강이 뒷받침하여 주지 않으면, 크게 뜻을 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 가운데 건강한 육체가 갖길기도 하지만,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자리 잡는 것도 진리입니다.

특히 또래나 동호인들이 모여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거나 함께 즐겨주는 놀이 문화가 잘 형성되면, 자신의 삶 속에 활력을 얻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교포 사회에 더욱 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문화가 잘 형성되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죽도록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세상과 인간관계와 조건을 즐겨워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동포사회를 바라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자녀교육 시키고, 돈 벌기 위하여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건강을 해친 후, 병들어서 힘들게 투병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위해서도 부부 사이에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운동, 서로 신뢰하는 친구들과 이웃 등이 모여 팔팔려 운동해야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나 다른 구기종목 등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과 기호가 맞는 사람들과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협력하여 건강을 다져나가는 놀이 친구가 필요합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놀자가 한 수 위라이엇 저것 내려놓고 다 함께 어울리면/그 무엇 부럽지 않고 별전지가 따로 없네/찾아보라 찾아보라 놀이 동무 찾아보라/이것 저것 말고 놀이동무 찾고 보면/번뇌에 휩싸인 몸도 한결같이 가벼워/이 세상 힘들이 큰 근심들이 불평원망 하지 말고/형님 동생 선배 후배 어우러져 놀다보면/힘들이 큰 근심들이 사라지고 말리라/힘들이 고 괴로운 일 이따금 생기지만/눈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하루 내리주신 것 늘 즐기며 살아가세

"새 힘 얻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해!" 필라교협 회장 안문균 목사(주님의교회)



새 해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Happy New Year!'로 축복합니다!

한 장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열 두 장의 묵직한 새 달력을 달아야 하는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해의 출구인 12월에 서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노라면 그늘지고 구겨진 삶의 자국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출구를 바라보면 매우 길어 보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요 삶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016년도 새해에는 '새 힘 얻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해'(사 40:31)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힘은 '위로'(upward aspect) 하나님을仰望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삼사다(삼상2:3).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가지고 '안으로'(inward aspect) 자신의 믿음과 삶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환골탈체를 실천해야 합니다. 환골탈체를 잘 이룬 독수리는 위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의의 병기"는 연주자가 원하는 원래의 소리를 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겉으로'(outward aspect) 이웃들에게 믿음과 삶의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함께 날고 싶어하는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합니다. 세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새 힘 받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성도들이 될 때에 2016년도 한 해를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여 완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 해석과 의미부여로 가치 있는 2016년 커네티컷교협 회장 옥영철 목사(페어필드한인교회)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앞길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빛이 나는(시37:4-6)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만나는 사람과 모든 일과 계획하는 모든 생각에 신앙적 해석과 의미를 부여함으로 가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는 죽순이 꼭 뻗어 곧게 자라 강한 대나무가 됩니다. 그것은 대나무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디, 마디가 이어져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인 대나무가 됩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한 해, 한 달, 한 주, 하루의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라는 마디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한 고을에 지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는 의미가 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시간, 일, 가정, 나라가 될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그 결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시간이든 믿음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해라는 마디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2016년, 365일이라는 가치중심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2016년이라는 한 마디의 한 해를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에 삶을 맡기면 의미 없으므로 가치 없는 시간과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가치가 발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은 고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의 선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왔을 때 참 잘 살았다는 고백과 결산이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



2016년 새해 아침의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희망찬 2016년 새해에도 주안에서 형제 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특별한 영적으로 우리를 크게 긴장케 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첫째는 2001년 네덜란드가 테오도시우스 법전 이후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 국가야 2015년 6월 26일 기준으로 미국 등 전 세계 17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게 된 일입니다.

둘째는 IS문제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수니파 칼리프 국가 부활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수니파 무장단체문제도 조직 체계나 잔인성, 종교적 극단성에서 한때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타깃이던 알카에다 등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오지의 훈련캠프나 동굴 외에 별도의 영토를 보유하지 않았던 알카에다와 달리 IS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과 시리아 라카 등 주요 도시는 물론 유전, 주요 도로, 국경지역까지 장악했고 행정체계까지 갖췄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여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새해에는 그 어느 때 보다 정신을 차리고 자아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전신감추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어둔 세력과의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한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 너시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2의 종교개혁 이뤄지는 뜻 깊은 한해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2016년도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간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 아쉬운 일, 못다 이룬 일도 많으나 굽이굽이 계속 계속마다 무사히 지나온 일들이 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여주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다시금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올해는 이 땅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들 간에 전쟁과 테러가 없어지고 온전히 평화가 깃들며 서로서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정겨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년 후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가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되살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더 말씀을 보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전심전력 경주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보람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위기상황이라 할 정도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상실된 윤리성을 회복하는 영적각성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사이버, 이단들을 적극 대처하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굳센 결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의 기도와 영적각성이 일어나는 제 2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허다한 허물 덮는 사랑의 해로 화합 뉴욕목사회 회장 김영환 목사(뉴욕호성침례교회)



대망의 새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빠르게 가는 세월 속에 다사다난했던 2015년 올미년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펼쳐지는 2016년 병신년 원숭이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빨간 원숭이해로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할 만한 좋은 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 질 것 같은 희망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깨끗이 지우려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으니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때 용서가 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질 것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병신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신년'이라 하니 한글로 말하면 어감은 좀 그렇지만 '병 없이 신나게 사는 해'라고 풀이하면 행복한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성경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1-3). 사랑만이 우리가 희망찬 2016년을 살아가길 해결책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속에 마음마저 위축되어 냉각이 되어 가는 이때에 구수한 군고구마와 따뜻한 호빵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누어주면 해결됩니다. 금년 새해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전해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 새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와 750만 디아스포라 교민사회가 속해 있는 뉴욕과 우리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 되길 애틀랜타교협 회장 정윤영 목사(아틀란타하은교회)



먼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영적타락과 또한 끊이지 않는 이슬람 테러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안감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2016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016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애틀랜타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사명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애틀랜타를 포함한 미주지역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잘 지역 사회를 섬겨왔지만, 앞으로는 이 험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교회들이 미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합심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새해에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애틀랜타 지역과 미주지역 그리고 한국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가운데 바로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2016년 새해에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

신년메시지 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 영광 위해 쓰임 받는 걸작품 되길
UMC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랜드 호프만 목사는 예술가로서 모래와 바닷물만 가지고 종교적인 조각품을 만드는 특이한 예술가입니다. 호프만 목사가 20여년에 걸쳐서 만든 모래 조각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기도하는 예수,'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등입니다. 호프만 목사는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와 소금기 있는 바닷물을 재료로 해서 이와 같은 작품들을 빚어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모래로 만든 조각품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니 몇 초 혹은 몇 분 후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수가 밀려오거나 비가 올 때,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칠 때 모래조각은 힘없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모래와 바닷물만 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쉽게 허물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정성을 다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프만 목사는 모래 예술품을 만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래 조각품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연약하고 무상한 재료로부터도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도 모래와 같이 보잘것없고, 조류가 밀려오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해변가에 무수하게 흩어져 있는 모래알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금방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만일 우리를 모래알로 본다면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다가 조금 후에 사라질 덧없는 모래 같은 인생이기에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모래알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모래와 같이 연약하고 무상한 저이지만 저를 쓰셔서 당신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호프만 목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모래 조각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유한하고 무상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멋진 예술 작품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참 많은 사건이 있었던 2015년이 가고, 2016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소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366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걸작품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행실로 세상에 선한 영향 끼치도록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 교회)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바로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Boundary Training을 통해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변화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이 주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성령에 신성한 바람이 우리 공동체와 이민 사회에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신앙의 절개 지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라스베가스교협 회장 **조준건 목사**(라스베가스하나교회)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각 지역의 교회들과 교회협의회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작과 맞추어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가진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들과 교인들이 항상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015년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해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 참다운 신앙인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교회들과 가정들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로 하늘 생명 이어가는 해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흔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 '다사다난했던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지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단순히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한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이 세상이 뿌리 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는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한 기억의 성탄절 예배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이 어울렸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탄절은 날씨가 유난히 봄날처럼 따뜻하더니 난생 처음 에어컨을 켜고 예배를 드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순쯤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롱아일랜드의 포트워싱턴 지역 주택가에 인접한 바다 물굽이에 약 30cm되는 벙커 피시 수백만 마리가 새가 땅에 해안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물고기들도 뭔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2015년 6월 말에는 미 전역에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미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In God We Trust'라고 돈에도 새겨 놓은 나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서하는 나라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결정을 미 대법원이 내린 해였습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보게 된 해도 지난 해였습니다. 극단적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경전인 꾸란에 기록된 대로 기독교인들을 참수한다는 이 시대의 새로운 기독교 박해의 모습을 지켜봤던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어가는 듯 한 이 시대에 우리는 2016년이라는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위로와 힘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것처럼(사6:13) 새해는 거룩한 씨의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아람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로서 하늘 생명을 이어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 영적리더로 최선 다하는 교협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갈보리새생명교회)



2016년 오렌지카운티기독교협의회를 출범시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OC기독교교회협의회는 힘을 다하여 지역사회에 영적 리더로서 최선 다하는 교회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희 OC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음화와 전도와 사회봉사에 있어서 교회들이 연합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 내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어려운 소 교회의 PK(목회자)자녀들의 장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모든 교회가 연합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협의회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교회마다 순방하며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조국에 통일을 위해 모여 기도하고 계신데, 교회협의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조국에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셨듯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그리고 권면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은 이민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밝아지는 희망에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협 모든 임원들은 더욱 겸손히 섬기고자 기도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했습니다. 후원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한국" 세우는 생애 최고의 해
크리스천제사태평양서남지방회장 **이성도 목사**(나성중앙교회)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의 노래에서 "내 생애에 최고의 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생애 최고의 해를 여호와께서 뒤에서도, 앞에서도 앞날에도 축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이사야 52:12). 건강문제, 약한 사람들, 경제문제의 적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앞날에는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2016년 희망의 새해에 맞으며 기도의 제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새해에는 "예수 한국"이란 제목으로 한국을 위기에서 살리신 믿음의 선조들을 따르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애국심과 한국 농촌에 희망을 심은 김용직 장로님의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둘째, 새해에는 "예수 한국"이 세계교회에 본이 되기 위하여 기독교를 위기에서 구한 말틴 루터의 개혁정신과 디트리히 분회퍼 목사님의 신앙을 본 받는 한국 청년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셋째, 새해에는 "예수 한국"을 세우는 청년들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 불행한 조선말년의 당파싸움, 세력다툼과 남이 잘되는 것을 방해하여, 조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는데, 오늘 현실은 역사의식 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엘리트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헤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고도착순)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신년특집



교회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안(1)

김만형 목사 (친구들교회 담임, Ph.D)

한국갤럽 2015년 1월 발표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이후 개신교의 증가율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신교 신자 수는 1984년 17%에서 19%, 20%, 2004년 21%로 증가하다가 2014년 21%로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또한 낮은 교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 이것은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갤럽의 자료는 아울러 높은 이탈률을 말하고 있다. 종교간 이동을 조사해본 결과 과거 종교 중 개신교 비율이 66.7%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신교 안에 들어온 사람마저도 바로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그들이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바로 배우지 못했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확실하게 신앙이 성숙되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 교육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서 가운데서도 필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4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청소년 이하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교회의 이탈률을 막아야 하는 것과 어린 시절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적하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교회교육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교육 현주소를 보면 실망스럽다. 기존 교회에서 장년들을 위한 교육은 일부 대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주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교회교육의 변화와 발전이 없어서 실증을 느낀 지 오래되었고, 선생님들마저도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해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제 교회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지 그 방향

이다. 이것은 곧 기초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디자인 하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기독교 교육자는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나 미션 스쿨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은 바른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즉 다른 일반 교육자들과 그 생각이나 태도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는 그것을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한다. 일반계시는 자연을 말하고 특별계시는 곧 성경을 가리킨다. 일반 학문이나 일반 사회 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계시와 관계된 것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반 계시만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것이 곧 성경인데, 왜 하나님이 특별계시를 주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반계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이

다.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본

성경, 일반 학문, 또한 삶의 경험 모두를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일반계시에서 발견된 진리를 다시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교육의 내용으로 성경을 다루느냐 아니면 일반계시에 기초한 여러 학문을 다루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면서 또한 모든 진리를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차이점이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치 막으로서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배우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다.

학습자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영접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을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자로만 보아 넘겨버리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들의 영적 구원만 돕는데 관심을 두어 그 곳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데 곧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보고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교육자,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 할 때 예베소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

(9면으로 계속)

교회교육의 새로운 인식 전환을 위해 (1)교육자 정체성 확실히 깨닫고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교육에 관한 입장을 바로 해야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목표, 가르치는 영이신 성령의 사역 알아야

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를 살면서 교회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존의 교회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은 교회교육의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한 언급이다. 새로운 교회교육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교회교육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일, 첫째는 교회교육에 참여하는 자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교육에 관한 입장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

기독교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방법론 보다 앞선다.

먼저 교회 교육자는 기독교 인식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프랭크 게버라인(Frank Gabelein)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을 했다. 이는 곧 이 땅에서 발견되는 어떤 진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플라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된 말인데 기독교 인식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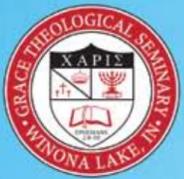
하나님은 진리 되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계시하셨는데 우리

질적으로 특별계시에 기초한 교육활동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특별 계시만을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일반 계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범주 속에 들어선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안에서도 진리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룰 때 이 모든 진리의 영역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과 더불어 일반 학문의 모든 영역도 연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교육하는 자가 성경에 기초한 관점(Perspective)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교회 안에서 성경 내용을 가르칠 때 '관'이 없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비기독교적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학습자를 볼 때도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먼저는 '모든 학습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학습자는 타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6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7-11(3월 7 -11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14-18 (3월 14-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Feb 1-5(2월 1-5일)
DI 8500 Discern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homas Stall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1-Mar 4 (1월 11일-3월 4일)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Feb 15-19(2월 15- 19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현대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세 교육은 가장 강력한 선교”

이희갑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부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육학과 교수)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신령한 비전을 꿈꾸는 자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그 창은 어릴 때부터 활짝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성인 기독교인들의 71%가 그들이 4살부터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들이 장성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곧 자라 나서도, 성인이 되어도, 나이가 지극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신앙공동체를 유지해 온 것은 그들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그들의 어린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힘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6:4-9을 보면 당시 어린세대들의 교육에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뛰어난 교육이론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결국 슈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4-9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이론들이 모두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중지능, 감성훈련, 상황화 교육, 인지이론, 구성주의 교육학, 발견학습, 학부모 코칭, 행함의 교육(Learning by doing), 상징을 통한 교육, 목표 중심의 교육이론(Management by Objectives) 등 모든 이론이 여기에 다 종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모세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역시 위대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다음세대가 반드시 기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구속의 하나님을 시간있을 때마다 가르쳤고, 출애굽 후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므로 그 현장을 보지 못했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막연한 교육의 이론, 철학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는 참으로 많은 기록과 설교를 남겨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0:9절을 보면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바로에게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두 함께 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타협안을 제시합니다(출9:11). 이러한 타협안을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과업이요 위대한 영적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아이들이 놓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장정들만 희생제물을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맡기는 행위, 그것

을 되돌리는 화해의 목적으로서 교육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문명은 지나가고 이 세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의해 연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다음세대에 신앙교육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성경 읽는 시간을 없앴고, 모든 기독교적 행사나 의식을 공교육에서 추방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은 원래 의도가 부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기독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학교 내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철폐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니 참으로 분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필자는 교육이 사단과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영적 전쟁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사단은 학교에서 신앙의 힘을 무력화하는데 계속 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인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가르치는 용기”(The Courage to Teach)라는 책에 의하면 기독교 교육은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가르치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학교의 교육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화해가 방향의 핵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창조, 타락, 일정부분 성공하고 있으며 아직도 계속 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화에 맞는 교육내용을 부단히 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학습자들의 처한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채택함으로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주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화와 토론, 발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상징, 은유, 이야기, 우화 등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였고 깨달은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시므로 교육이 효과가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Parker Palmer)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교육은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론이나 테크닉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 내면의 정체성(Identity)과 자기 성실성(Integrity)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교사에 의하여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필자가 몇년 전부터 추구하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세 교육은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선교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2016년에는 교회는 아이들의 교육에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득차고 성경 읽는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2016년에는 사단이 절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린이들에게 심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이러한 과업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교육 방향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하는 화해가 핵심 대화, 토론, 발견주의적 접근 통해 스스로 깨닫는 방법 모색



구약 출간예정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일간목회) 기획 2,106면
이영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번역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재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신년특집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스티브 황 목사 (뉴욕수정성결교회 담임)

Generational Ministry

청소년 사역은 우리의 미래, 내일을 위한 투자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 대표로 스티브황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황 목사는 자신이 한인 1.5세로 당연히 2세 교육과 차세대 목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스티브황 목사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정리, 게재한다.[편집자]

저는 뉴욕에 1981년에 이민을 와서 줄 곳이 뉴욕에서 자란 1.5세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이 뉴욕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자라나는 2세 또는 3세들을 향한 사랑 역시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라는 배경을 잠깐 소개한다면, 저는 청소년기에 가족 이민으로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협 청소년 할렐루야 집회를 참석했고, 할렐루야 집회 때 찬양인도를 했으며, 목사가 된 후에는 청소년할렐루야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할렐루야 집회를 총진행

Center인 만큼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AYC가 되도록 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2. 차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의견 및 비전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 다 보전 되느니라”(마9:16-17).

제가 15세 목사로 사역을 해와서인지 “새 포도주를 새 가족부

잘못했고 2세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we are different하다는 겁니다.

- 1)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필요합니다.
2) 새로운 세기의 교회는 새 세대가 책임지는 교회
3) 새로운 문화속에 있는 새 세대 교회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 가운데 윌로우크리교회에 아실 것입니다. Seeker Sensitive(구도자 예배)로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담임목사인 Bill Hybles 목

PPT를 올려 찬양 가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학교 아이들도 자신의 동영상 만들어 youtube 과 같은 사이트에 올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던에서 했던 사역이 포스트모던에 들어와서도 그 사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New Generation 에 맞추는, 소위 영어로 Relevant 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맞고(Right) 무엇이 틀린것(Wro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Different!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써, 크리스천 됨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과정,

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변형시킨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한 파트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생애는 참을 수도 없을 만큼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사계절을 즐기며, 맛이 다른 음식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현재의 상태들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시도해 보려 합니다. 그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응을 나타내며 아예 무시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뒤집어보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기도 합니다. 인간

다. 1세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며 부지런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2세들이 그들의 영적 특성들을 인정하기에 우리들은 그 좋은 특성들을 잘 받아들여 변화할 뿐 아니라, 보다 나아가 2세 교회 대대로 상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 교회는 더 이상 1세대와 2세대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1세, 2세, 그리고 이제 3세가 우리 이민교회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교회가 필요한가? (변화는 선택이 아닌 준비의 문제이다)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 새 문화 속 새 시대 교회는 새 세대가 책임 이민 교회는 더 이상 1세대와 2세대 교회가 아닌 다세대로 넘어가

을 맡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전 청소년센터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우면서도 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협의 청소년센터(AYC)의 역할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역은 우리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은 미래가 희미하다는 말이고, 청소년 사역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넘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사역은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훌륭한 청소년 사역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Generational Ministr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 뉴욕 청소년 센터 대표로 계획은?

제겐 그리 크고 대단한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제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재정, 행정, 인력).

둘째, AYC의 비전과 목적입니다. 가치와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나 단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YC의 정체성을 제 정비하면서 AYC와 함께 비전을 나눌 분들을 모색하여 함께 세워가는 센터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2세 사역자들이 AYC의 Ownership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AYC는 청소년 집회와 농구대회 그리고 아주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꼭 가고 싶은 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사역자가 없거나 부족한 교회를 도와 청소년 사역이 정착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AYC는 Asian Youth

대에”라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던시대의 사람들인데,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는 모던시대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모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자는 어떠한가? 모던도 아니고 포스트모던도 아닌 그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던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시대적인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지 주수가 어디인가는 알고 시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액체들을 저장하는데 동물의 가죽들이 사용됐습니다. 그 가죽들은 입맛을 버리게 하는 맛들을 최대한으로 없애기 위해 특별히 무두질되어 처리되고 취급되었습니다. 무두질 후 때가 되면 가죽이 딱딱하고 부서부서져서 적합한 용기로 되어 집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한참 삭혀지는 과정에 있는 새 포도주를 현 가죽부대에 담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삭혀지고 있는 개스로 인해 그 부서부서진 용기를 깨어버리고 가죽부대, 또한 포도주마저도 아무 쓸모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새 포도주는 유연성 있고,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에만 언제나 넣어서 개스 압력에도 잘 견디어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위에서 소개된 이야기의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낡은 가죽부대이건 새 가죽부대이건 다 마찬가지로 가죽부대이며 또한 현 포도주나 새 포도주나 다 포도주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던시대의 방식으로 포스트모던을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많은 갈등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1세가

Table with 2 columns: 전통교회 and 새 세대 교회. Rows include: 1. 프로그램 중심 vs 사람(생명) 중심, 2. 조직체 (Organization) COME! vs 유기체 (Organism) GO!, 3. 전문적인 지도력 vs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활약!, 4. 전문적 관리자 vs 멘토링과 모델링 훈련을 통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 5. 효과적 프로그램 vs 양육과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세운다, 6. 평신도는 교역자의 조력자(목회자를 위해 성도 존재) vs 평신도는 교역자의 동역자, 7. 수동적 vs 능동적, 8. 교실에서의 강의 위주 vs 멘토링과 모델링 훈련을 통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 9. 얼마나 아는가? vs 얼마나 섬기는가?, 10. 관료적, 권위적 리더십 vs 섬기는 지도자

사람의 충격적인 고백을 여러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Confessed that they failed...’

구도자 예배를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된다는 자랑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구도자 예배에 ‘매력’을 오늘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큰 프로젝트(Projector)로 영상을 만들고

어떠한 일들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이들와의 관계 맺음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1세와 2세가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맞는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1세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들은 1세 부모님들께서 해오시던 방식에의 전혀 반대로, 거꾸로 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보

은 항상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교회도 변하고, 그동안 또한 교회내의 각 교인도 변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나”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인 1세는 우리 2세들이 존경하는 많은 좋은 특성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정열, 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확고한 헌신, 풍부한 기탁, 희생정신, 그리고 위험성에도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능력 등입니다.

전통교회와 새 세대 교회의 차이점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질(Essence)은 변하면 안 되겠지만 방법이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Relevant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뉴욕수정교회 사역 소개

1) 저희 교회는 현재 3중 언어 회중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권, 중국어권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데, 해외 선교 못지않게 국내 선교적 일을 감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세 회중보다 2세 회중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2) 공동체 정체성 확립 전교인 캠페인(사순절 기간)과 가을가족 축제(10월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까지)를 합니다. 3중 회중이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인식과 소속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3) 선교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교 바자회와 미션 콘서트를 통한 여름 선교 후원금 마련은 1세의 몫이 더 이상 아님을 알고 다세대가 다민족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3단계 훈련: 한국어, 영어권, 학생부, 중국어권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 직분과 사역 팀장 그리고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4. 지역교계에 부탁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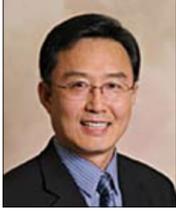
사실 저는 AYC 총회 때문에 참석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대표 후보로 올라 무척 놀랐고, 지금도 AYC센터 대표가 되었다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Timing)이라는 생각에 순종하며 대표직을 맡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stevhwang@crystalchurch.org



목회서신

새로움의 비밀



여승운 목사

시간이 벌써 2015년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두 마음이 교차한다. 보내는 목은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다. 저울의 무게로 따진다면 보내는 목은 한 해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설레임이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설레임은 새로운 기대와 함께 새로운 결의들을 사람들과 다 만들게 한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결의들을 종합해 보

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새해의 결의들이 3월 혹은 2주, 혹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결의를 만들고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시도한다. 그렇게 시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 슬금 흐지부지 하다가 아예 멈춰 버리게 된

다는 것이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달력이다.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1월 1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2월 31일은 썩고 부패하고 목은 시간이며 1월 1일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선한 날일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런 것인가? 1월 1일은 특별히 새로워지는 신비스런 요소가 뿜어나오는 날인가?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12월 31일이나 1월 1

일이나 동일한 날이며, 동일한 시간이며, 동일한 환경이 아닌가? 차이가 있다면 달력이 한장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달력의 숫자가 2015에서 2016으로 12에서 1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1월 1일 새해가 오는 것을 은연중에 신비스럽게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새해가 오면 뭔가 새로움이 찾아올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게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새로움은 낱씨가 바뀌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래된 필자의 아내가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 냉장고 인사이드 청소를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냥 지냈던 적이 있었다. 냉장고가 워낙 오래된 관계로 인사이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시간을 따로 내어야 했었다. 눈에 보이는 집안 청소는 시간이 되는대로 하고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집안이 그런대로 깨끗해 보였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냉장고 인사이드를 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상쾌하지가 않았

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한나절의 시간을 따로 내서 냉장고 인사이드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의 이곳저곳을 두루 두루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청소를 다 마친 후에 느끼는 기분은 너무나 상쾌하였다.

새로운 결의문 몇 개 만드는 것으로 혹은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다지는 것으로 혹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2016년에 대한 새로움을 기대 한다면 2016년의 1월이 가기도 전에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코스를 잘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코스를 제대로 찾아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가정의 새로움과 생활의 새로움과 교회의 새로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고민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

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에서만 찾아온다는 진리를 보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이끄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인격적 교통을 가지는 순간 전인격이 새로워지게 된다. 새로운 비전이 나오고, 새로운 열정이 나오고, 새로운 사랑이 나오고, 새로운 용서가 나오고, 새로운 화해가 나오고, 새로운 섬김이 나오게 된다. 새해의 달력에 나오는 2016년과 1월 1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 자체에 새로움의 기대를 걸지 말고 그 숫자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교통하는 그 시간 시간들이 곧 새로움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움의 유일한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더욱 묵상하고, 더욱 선편하고, 더욱 찬양하라.

은퇴후 20년 'Gold Mission' 계획하라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정례 및 송년 모임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 송종록 선교사) 4/4분기 정례 및 송년 모임이 28일 오전 10시 컴미션에서 열렸다.

송종록 목사 사회로 드린 1부 경건의 시간은 김학정 선교사의 찬양 인도, 양태철 목사 기도와 최찬영 선교사의 말씀, 축도 김정복 목사로 진행됐다.

최찬영 선교사는 함께 자리한 선교단체장들에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전제하며, "모든 민족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낮아지고 섬기고 주는 것이 선교이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르친 학생들과 현직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나보다 앞서는 리더가 되기를 꿈꾸며 그들을 가르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선교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퇴 후 20년을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Gold Mission'을 계획하고 선포해 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특강 시간을 통해 안기주 집사(남가주비전교회)는 '눈 건강관리 및 시력의 자연치유'라는 주제로



송년모임에 참여한 남가주선교단체 협의회 회원들

강의했다. 안집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이나 컴퓨터를 20분을 집중해서 보았다면 20초 동안은 멀리 있는 사물을 보며 시신경을 쉬게 해주는 것이 눈 보호를 위한 첫 번째 처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전호흡이나 파민(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는 것),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운동들도 시력을 회복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2부 보고 및 나눔 시간은 지난 한 회동간의 활동과 재정보고 있었으며, 박기호 교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은 뒤 합심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이날 오찬은 김미선 이재환 목사가 준비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7면에서 계속>

배우는 자로 인격적인 온전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까지 온전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곧 교사라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쟁성한 이후 좀더 성숙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영적 성숙의 개념에서 상호 돕는 일로 언급되고 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만큼 성숙한 자로서 이보다 덜 성숙한 사람을 도와서 내 수준으로 까지 끌어올릴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르치는 일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어린 심령들, 연약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일반 교육자와는 달라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관해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 하셨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

기 하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청소년 사역의 디딤돌을 놓은 사람으로 알려진 짐 레이번(Jim Rayburn)이라는 미국의 영 라이프(Young Life)사역을 시작한 분이 있다. 그가 청소년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육신의 모델을 사역에 접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사역이 잘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임목사가 하는 말이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내가 돌볼테니 당신은 학교로 가라"는 것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학교로 갔다. 이것은 1930년대에는 전혀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의 철학과 방법론의 기초를 놓았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목표도 선포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이다. 먼저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목표를 말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르침의 중요한 사역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결국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온전케 하고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음호에 계속)



OC기독교 평신도연합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화평함과 거룩함 추구, 맡은 역할 잘 감당"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이하 평연)가 회장 연임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26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고 새로운 회기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정창섭 평연이사 사회로 드린 감사예배에서 한기홍 목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히12:14)이란 제목으로 "이 세대에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 지역과 세상에 맡겨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OC교회회장)는 "연임하게 된 윤우경 회장이 임원과 이사회와 더불어 교계와 지역을 아울러 교계의 단합에 힘이 돼 줄 것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신임 정준동 이사장(은혜한인교회)은 "29대 회장을 역임한바 있고 20대 중반부터 평연에서 활동을 시작해 환갑을 넘어 까지 여전

히 평연을 섬기고 있는 것이 복된 일"이라며, "36대 회장단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연임하게 된 윤우경 회장은 "지나해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우라는 명으로 알고 수

살롱장로교회 연말연시 전교우 특별기도회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연말연시를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보내고 결단과 새 결심으로 실천을 통하여 새해를 최대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하고자 전교우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갖는 특별기도회는 △각자가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한 해로 마무리하고 △새해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 해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과 총선을 통하

락했다.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함께 걷고, '함께 섬기며, '함께 기도하는' 회기로 나 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평연은 1980년 당시 80여개 지역교회 평신도 대의원으로 결성돼 최근 평신도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고 평연 활동을 통해 크리스천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매년 말씀집회와 교계연말 체육대회, 광복음악제, 교계연합 성가제 등이 있으며 매월 첫 토요일 오전 7시 조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2016년 시무예배는 2일(토) 오랜 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드린다. 자세한 것은 (213)500-5449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기자)

여 지도자를 잘 뽑도록 등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

나성균 목사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총과 일반은총을 다 같이 누리 가장 풍성한 한 해로 시작하고자 특별기도회를 개최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동 교회는 정월 초하루는 예년과 같이 신년원단 금식기도로 한해 첫날을 드러 한해 전체를 더욱 하나님께 드린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시에 위치한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제적 250명, 출석 200명으로 자체교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 1. PCUSA 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Div)졸업 하신분
2.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하신분
3. 목사 안수후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부목사 경력 포함)
4. 이중언어가 가능하신분 (한국어,영어)
5.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한국어,영어 각1부)
2. 목회비전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3. 설교 2편 (최근 6개월 이내 CD, 동영상, website 주소 제출)
4.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서
5. 추천서 2인(목사님) 반드시 자필 서명
6. 사역교회 주보 (최근 1개월분)
7. Personal Information Form
(Download from : http://www.pcusa.org/resi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서류 마감

- 1. 제출 기한 : 2016년 1월 31일
2. 서류보낼곳 : (우편주소) 29900 Brighton Court Delmar, MD 21875 : IL BAE KIM
3. 문의 : 청빙위원장 - 김일배 장로 (전화 : 410-422-9266),
청빙 위원 : 김금화 장로 (전화 : 410-430-9288) Email: geumh119@hotmail.com
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회 웹사이트: www.skoreanchurch.org

5월 가정의 달 맞아 사랑의결혼식(가칭) 추진

남가주한인목사회 오찬 겸 기자간담회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11시 교계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로텍스 호텔 내 여수식당에서 열었다



남가주목사회 임원들과 교계기자단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사랑의빛선교교회 목사 위임식에서 기도를 받고 있는 윤대혁목사

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목사회 새 임원들이 교계기자들과의 회동을 갖고 2016년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목사회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사랑상 결혼식을 갖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엄규서 목사는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목회자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목회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기사를 쓰려고 해도

수 없었다. 목회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기분이 매우 언짢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연합해 좋은 일을 구상하고 추진해나간다면 이만사회에 실추된 교계위상이 점점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랑의결혼식'(가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결혼식은 무료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구상이 됐다. 그러나 무료라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참여하는 커플에게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명칭을 사랑의결혼식으로 변경했다.

(박준호 기자)

시각장애인선교회, 봉사자에 위로금 전달

군사랑선교회 송년감사예배 및 정기총회

군사랑선교회(CLMM 회장 김희창 목사)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26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월드비선대학교 6층 채플에서 송년감사예배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교는 창립자인 명예회장 임동선 목사가 "성숙한 신앙"(고전 13: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회장 김희창 목사의 사회로 박명만 장로 기도, 차기학 부회장 성경봉독, 오위영 목사에 이어 셋별찬양선교합창단과 시각장애인선교회모니카합주단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이신모 원로 사무총장의 인도로 △한국군과 미군 △조국의 평화 및 세계평화 △한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뒤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시각장애인선교회와 봉사심기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참석한 50여명의 회원들의 식사와 친교가 있었다.

군사랑 선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453-4572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군사랑선교회)

미주평안교회 100일 릴레이기도

미주평안교회(담임 이승진 목사)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전교인 10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016년 3월 13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릴레이 기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교인이 참석한다. 금번 진행 중인

릴레이 기도는 '다음 40년(세대)을 위해',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태신자 전도와 열매를 위해',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풍성한 영적인 삶을 위해'란 제목으로 기도한다.

▲문의: (213) 381-2202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미래”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담임목사 위임식

사랑의빛선교교회 제 3대 담임 윤대혁 목사 위임식이 주일 1, 2, 3 부 각 예배 시간에 있었다. 주일 첫 예배인 오전 8시 1부 예배는 김창섭 목사의 인도, 이창주 집사 기도에 이어 본 교회 김재문 원로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김재문 목사는 “하나님의 꿈으로 사십니까?”(고전10:31-33)의 제목으로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대사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이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신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위임식은 김종욱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총회 상임총무)가 목사와 교인들에게 서약한 후 본 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위임 패와 선물 증정 시간이 있었다.

사랑의빛선교교회는 1992년 10명의 성도가 김재문 목사 인도로

교회 설립을 위한 첫 기도 모임을 갖고 시작돼 빠른 부흥을 이뤄냈으며 2010년 김재문 목사가 원로목사로 취임함에 따라 2대 최혁목사, 3대 윤대혁 목사가 지난 2014년 취임했다.

윤 목사는 서울 요원교회 청년부와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학청년부를 담당, 청년사역자로 사역해 오다 2014년 사랑의빛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성자 기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크리스마스콘서트에서 본교회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본 교회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졌다.

본 교회 찬양담당 지명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원동석 장로(찬양사역부)가 여는 기도를 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성탄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본 교회 헌성중창팀과 찬양팀의 무대가 있었으며, 특별게스트로 피아니스트 윤국형 교수(M), 보컬리스트 박선영 자매, 색소폰 연주자 조원익 목사, 찬양사역자 이은주 목사, 그리고 수퍼스타K7 출연자 이요한 형제가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콘서트는 김경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분립개혁 '그교회' 첫 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분립 개혁한 '그교회'(담임 이현동 목사) 첫 예배가 1월 3일(주) 오후 1시30분 드러진다. 그교회 주소는 104 Berkshire Pl.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토랜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능력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시간은 새벽 6시. ▲문의: (310)326-2001

남가주든든한교회 40일 요셉특별새벽기도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요셉특별새벽기도회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예배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40분이며 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송구영신예배는 31일(목) 밤 11시. ▲문의: (213)481-2779

소망소사이어티 2016 시무식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2016년 시무식을 6일(수) 오전 10시30분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갖는다. ▲문의: (562)977-4580

은혜한인교회 새벽부흥회 및 신년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최남수 목사 초청 신년축복성회가 1월 21일(목)부터 24일(주)까지 열린다. 또한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은혜이슬 새벽부흥회를 열고 신승훈 목사, 박승규 목사, 고태형 목사, 박광철 목사, 이서 목사가 순차적으로 단에 선다. ▲문의: (714)446-6200

미주장신대 학생모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2016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목회학을 비롯한 ESL 과정도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714)402-9928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 학생모집

남침례신학대학/대학원(학장 박성근 박사)에서는 선교와 목회에 소명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한다. 등록마감은 1월 15일(금)까지이며 18일(월) 개강한다. ▲문의: (213)384-3552

한인기독교상담소 결혼세미나

월드비선대학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에서 2016년 1월 12일(화)부터 4주간에 걸쳐 '사랑의 레시피-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경준 목사(총현선교교회 가정사역담당). ▲문의: (213)738-6930

베델한인교회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목사)는 12월 29일(화) ~ 2016년 1월 9일(토)까지 '오직 예수께만 시선집중!'이란 주제아래 엘리야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주중 새벽 5시, 토요일 새벽 6시. 강사는 김한요목사, Justin Kim 목사, Kenton beshore 목사(Mariners Church),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이희문 목사(LA기쁨의교회), 정대성 목사(폴로라도뉴라이프선교교회),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 ▲문의: (949) 854-401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idrock@gmail.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찬양부흥회: 오후 7:30 영아권(장소:KDC, 링컨빌센터) 철은이예배: 오후 11:20 성인영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등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계속해서 돌이켜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부"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부호 없음), Tel: (213)210-688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8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새벽: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25 / Fax: (949)857-0004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1:00(청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pastor@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대중부) 주일영양예배: 오후 11: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6:0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얼빈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49)857-9225 / Fax: (949)857-0004 www.irvinescpc.org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사관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 오전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racemi.com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생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8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종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86-9250 Fax: (714)68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2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랜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2015 한국교회 10대 뉴스-국민일보]

‘동성애 축제’ 강행...성경적 가치관 공격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동성애가 특정 집단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뛰어넘어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국민보건의 근간을 뒤흔들며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소수자 전략을 펼치며 인권논리를 앞세워 일부 진보진영 측과 연대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불가능해져 에이즈 감염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봉은사역명 여론 조작... 종교편향 논란

지난 3월 개동된 서울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은 불교계가 유포시킨 ‘종교편향’ 논리의 민낯을 그

신(총회장 신상현 목사)과 고려(총회장 원현호 목사)는 예상고신이 됐다. 개척 측 일부도 예상개혁(총회장 박영길 목사)이라는 지붕 아래 모였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반대 주장을 펼친 기존 교단의 잔류 측 성도들과의 연합방향 모색, 통합교단으로서의 원활한 체제 개편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종교인 과세 국회 통과...2018년 시행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7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한 교계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 통합 등은 찬성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교회나 목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무 조사가 악용될

각오를 다지며 한 해를 보냈다.

국민일보, '하나님의교회' 등 이단과의 전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진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려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특성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유력 로펌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대표번호 사 이광범)를 선임해 한국교회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나님의교회는 국제위리브유동본부 행사 때 '국민배우' 이순재씨를 앞세우기도 했다.

이슬람 할랄식품 강타... 교계 강력 반대·저지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할랄식품 테마단지를 반대하는 기독교

조현삼 목사는 긴급구호팀을 현지로 보냈고,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과 월드디아코니아(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지난 7월 전 세계 루터교연합체인 루터교세계연맹 네팔지부, 네팔한국선교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 및 학교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교단과 기독교 NGO, 교회들도 네팔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단별 입장 갈려

한국교회는 '뜨거운 감자'였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 근대화에 미친 기독교 역할을 비중 있게 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계는 '2015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종교편향'을 지적했다. 다만 '국정화'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연호회 등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동성애 · 이단 · 이슬람 파도... 뚝뚝 뭉쳐 맞선 한국교회

대로 보여준다. 봉은사는 역명 조사 때 사찰 홈페이지와 서울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여론을 조작했다. 역명이 확정되기 10개월 전 봉은사 주지는 2007-2010년 봉은사 미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역명 제정과 지하 통로 무상설치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코엑스역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역명교체를 요구했고 강남구청은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장백석-대신, 고신-고려 등 교단 통합

지난 9월 장로교단 총회에선 크고 작은 교단들이 통합을 이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예장대신으로, 고

까 우려해서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교계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언더우드·아펜젤러·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2015년 한국교회는 이들 선교사의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선교사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며 회개와 쇠신을 촉구하는 주문도 북물을 이뤘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분단 70년의 아픔을 되새기는 행사도 많았다. 8월 9일 서울광장 등 국내외 93곳에서 열린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대표적이다. 2010년 8·15 대성회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계 운동이 활발했다. 특히 지난 17일 익산시청 앞에서 열린 '할랄식품 반대 특별기도회'를 기점으로 확산됐다. 이들은 "우리 기업이 할랄식품을 인증받는데 1-2년 걸리고 유효기간은 1-2년에 불과해 소모되는 비용대비 효과가 작다. 정부가 할랄식품 테마단지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슬림 근로자가 늘면 이 지역은 불법체류자의 은신처, 이슬람근대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 교단·기독교 NGO 앞장

한국교회는 지난 4월 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긴급구호활동 등을 펼치며 네팔 국민을 위로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봉사단(단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예장 통합 등은 "다음세대의 역사인식이 확립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홍기상해·성추행 논란...목회자 윤리 타격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과 위상 추락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지난 10월 있었던 예장 합동 총회 총무를 지낸 황규철 목사와 같은 교단 박석규 목사 간 갑부림 사건이 대표적이다.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 성추행 문제로 삼일교회에서 물러난 전 병욱 목사의 행보도 논란이 됐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전 목사가 세운 흥대세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용해 반축을 샀다. 이밖에 크고 작은 교회의 재정 비리, 신학자들의 표절 시비 등이 이어졌다.

10개월째 북한 억류 임현수 목사

종신노역형 재판 유튜브 영상 올라

북한에서 조선특대형 국가전복 음모행위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게 세계인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법정 증거자료로 임 목사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홈페이지에 '조선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캐나다(캐나다) 목사 임현수를 재판,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 언도(선고)'라는 제목으로 임 목사

의 재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임 목사는 10개월이 넘는 억류의 무게에 지친 듯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의 증거가 된 유튜브 영상에서 임 목사는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예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쇼하는 모습은 10%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린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임 목사가 2013년 10월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의 미주 기도성회에서 한 설교에서 나왔다. 북한은 2년 전 설교를 올린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내며 그에게 죄를 물린 것이다.

최근 '유니콘 동굴'이라는 관광 명소까지 만들어 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북한으로선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관광객으로선 SNS에 올린 내용을 문제 삼아 억류시킨다면 안심하고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서명운동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1만5000명을 목표로 한 '임현수 목사 무사귀환을 위한 서명'이 올라와 5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이 평양을 방북하게 된다면 임현수 목사를 사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영화 '프리덤' 관객 10만 돌파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저자한 존 뉴턴(1725-1807)의 실화를 담은 영화 '프리덤(Freedom·자유·사건)'이 관객 10만 명을 모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서 지난달 19일 개봉한 프리덤이 누적관객수 10만 2821명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약 한 달여 만에 프리덤은 '아메리칸 셰프' '미라클 벨리에' 등에 이어 9번째로 10만 관객을 모은 다양성 영화가 됐다.

공중파 방송에서 기독교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주기철(1897-1944) 목사의 삶을 담은 KBS1 TV의 프로그램 다큐1의 성탄절 특집 '일사각오(一死覺悟) 주기철'(연출 권혁만 PD)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평균 시청률 9.15%였다.

25일 밤 10시에 방영된 '주기철'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집계)은 서울 9.7%, 수도권은 8.6%였다.

KBS 관계자는 27일 "올해 방송된 다큐1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이라며 "종교적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KBS 다큐1 홈페이지에는 시청

자 소감이 500여건이 올라왔다. 주 목사의 삶에 감동했다는 크리스천의 반응이 주를 이뤘지만 일반인도 적잖게 소감을 남겼다.

한 시청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이 나라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지난주까지 4회가 방송된 다큐1의 누적 시청자 소감은 90여건에 불과하다. 방송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요 포털에는 주기철이 실시간 검색어 10위권에 오르내렸다.

'일사각오 주기철'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내년 3월 초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분단 이 땅에 진정한 평안 깃들길..."

한기총 임실행위원, 판문점 방문 JSA교회서 성탄예배

판문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248km의 분단선 중 유일하게 철책이 걸린 곳. 경기도 파주 진서면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위치한 남·북의 낮은 막사들은 추위가 주춤한 날씨에도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공동경비'라는 말 그대로 남과 북의 협력을 전제로 한 지역이지만 지척에서 마주보는 양측 병사의 시선은 차가웠다. '긴장된 평화'를 유지 중인 이곳을 22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찾았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현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다.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임원회와 실행위원 80여명은 판문점을 견학하고, 육군 1사단 JSA경비대대 장병들과 성탄예배를 드렸다.

판문점 내에 견학이 허용되는 장소는 한정돼 있다. 대표적인 곳은 군사분계선 위에 설치된 5곳의 조립식 막사들이다. 한기총 관계자들은 그 중 장성급 회담이 이뤄지던 T2막사를 찾았다. 북의 지속적인 도발로 2009년 3월 이후에는 회담이 진행될 적이 없다. 이 회담장은 남북에 걸쳐 놓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 땅을 밟을 수 없다. 회담장 안에서 군사분계선은 효력이 없지만 내부 구조물들은 분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중앙예배를 위해 가로지르는 마크로 선이 남과 북을 구명하게 구분 지었다. 통제에 따라야 하기 이곳에서 따로 모여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못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각자 선 자리에서 북한

성탄예배는 판문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JSA교회에서 열렸다. 이 교회는 6·25 전쟁 직후 미군이 막사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에서 출발했다. 2004년 JSA의 경비업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된 뒤 한국병사들을 위해 JSA교회가 설립됐다. 현재 건물은 서울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의 후원으로 2010년 건축됐다. 예배당 전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새겨져 있다.

예배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이들은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로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날 예수께서 오신다면 낯익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이 목자들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절망과 탄식으로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탄예배에 앞서 한기총은 1사단 12연대 1소초에서 '독서카페' 기념식을 가졌다. 독서카페란 일반전초(GOP)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컨테이너 형태의 휴식공간이다. 육군은 장병들이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받아 독서카페 건립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사각오 주기철' 시청률 9%

KBS1 TV의 프로그램 다큐1의 성탄절 특집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탁지역 교회. A grid of 24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nominations across the US and Canada.



인종 차별에 대하여

이윤석 목사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들어가는 말

인종차별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적인 한계에 따라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향해 그 사람의 조상이나 피부의 색으로 인해서 싫어하는 것은 최악된 것이며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각자 각자는 조상이 누구인지 사실대로 알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만으로 그 후손 자체를 가지 있게 하거나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런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하여 매우 부분적이고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종 차별이 왜 발생합니까?

인종 간에 증오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조상이 관계된 이유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화해되지 못한 상처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왔던 노예제도와 근대까지도 이어온 분리 정책의 역사 때문에 백인들에 대해서 분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

이 다른 인종보다 열등하다는 것도 분명히 편견이며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설사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증명하며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일반적으로 더 지능적이고 우월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증명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라도 어떤 것에 대해서 능숙하고 잘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 검사는 지능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인 성취를 위해 적합한 특정 종류의 지능만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열의 평가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4. 인종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종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인종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능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며 과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이 한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프로 농구에서 뛰고 있는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비율적으로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힘든 노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인 우월성이나 열등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개인들에 대한 편견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정 부류의 인종 집단이 타 인종집단에 비해 열등하거나 우월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하는 혼합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종들은 누구라도 함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원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과 다른 인종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르는 사회적인 결과를 잘 알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종 사이의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종을 분리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결코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악화를 가져올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통합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들 간에 사랑과 존중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과 같이 피부색보다는 그들의 성품에 의해 판단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높은 성향도 인종차별일까요?

우리가 비슷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경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공유하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나 친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적 집단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집단들 사이에서 보다는 동일한 집단들 내부에서 더 높은 차원의 상호 이해와 공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풀기 쉽고 또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들이 서로를 "영혼의 형제(soul brother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인종 밖의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상 외부인들은 친밀한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자연적인 성향 자체를 꾸짖지 않습니다. 한 인종이나 한 성으로 된 학교는 모든 이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교들을 세운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택시 강도가 빈번하고 여러 택시기사들이 살해당한 곳이라면, 운전사가 백인이거나 동네의 대부분 사람들이 흑인이거나, 그는 택시를 태우고 그 지역으로 가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런 경우에 택시 운전사는 인종차별을 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9. 흑인과 백인들이 각각 드리는 예배가 인종차별적일까요?

왜 흑인들과 백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거나 흑인 기독교인들이 백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란 서로를 가장 친밀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 인종으로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데 이것은 소통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것은 민족적인 한계 안에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흑인교회와 백인교회는 음악을

선정할 때나 설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흑인들이나 백인들은 같은 인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같은 인종이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종차별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사는 재미 한인교회들도 친밀하고 친숙하게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적 습관을 선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차별에 대해 의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을 통하여 이 인종적인 방벽을 깨뜨렸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사람들을 불러서 한 위대한 새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민족적 집단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마땅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아가야 하며, 회중들은 언어의 차이까지 포괄하며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평등주의에 근거해서 모든 민족 집단에게서 친구를 찾아야만, 더 이상의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한글을 하는

상당히 임의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말... 이 땅에선 완전할 수 없어 은사의 다양성처럼 인종마다 다른 능력/기술 인정하고 조화시켜야

대로 백인들은 흑인 커뮤니티의 계속되는 범죄율이나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백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몇몇 흑인 지도자들의 말들 때문에 흑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 대한 양식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특별한 인종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소수 특정한 집단이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인종차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미워하는 감정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일부의 행동 때문에 전체 인종을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압하는 계층이 억압을 받는 집단을 싫어하거나 그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억압을 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억압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종차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는지에 근거해서 증오나 차별을 하든지 받든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 인종차별이 항상 미워하는 감정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인종차별은 미워하는 단계 이상 더 나아가 우열의 감정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감정을 포함합니다. 한 인종



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임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다른 이방민족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인종도 사람들에게 가능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영적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모든 것을 다같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서로를 차별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한 일부의 실제적인 평가를 인정해야 할까요?

미국의 중서부의 한 대학의 농구 감독은 "흑인 운동선수가 평균적으로 백인들보다 더 잘 달리고 높이 뛰었다"고 말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독의 관점은 사실의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모든 특정한 능력에 있어서 모두 똑같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의 다양성처럼 나라들과 인종마다 모든 능력이나 기술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IQ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종차별주의

는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의 남미인들이 있다는 통계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지는 테러들은 무슬림에 의한 것이 많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흑인지역에서는 사생아의 출산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미국의 노예의 소유주들은 백인들이었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의 문화가 우상중심의 문화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그들의 심각한 우상숭배를 견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한 시점에 대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표현에 대해 그것들을 인종차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종이나 국가의 죄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고유한 죄들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서로 권해야 합니다.

7. 인종간의 결혼이나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지만 인종적인 자격요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다른 많은 애굽인들과 미디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라합과 롯 같은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

사람들은 한글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영어를 말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내 삶을 드러내면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통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선교사들의 값진 노력과 피땀은 복음으로 우리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의 한계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공동체의 편안함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 않고 있거나, 다른 문화, 인종,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위협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늘 인종과 문화를 포괄하고 초월하여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역입니다.

성경이 모든 회중에게 다문화주의나 다민족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민족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은사를 교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어와 예배와 사역의 스타일을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다문화적 성장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는 말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임의적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많은 이들이 다루는 강력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사회에서 나쁘다고 여겨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그것은 인종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이나 인종차별의 개념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친밀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결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대규모 선교운동 '메이드 인 차이나'

고든 코넬 CSGC, '중국 2030년까지 선교사 2만명 파송계획' 전망

5년 전, 200명 이상의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구급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로잔대회 회의장의 빈자리는 세계선교에서 중국이 당연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0년 케이프타운 사건은 중국교회의 선교 의지를 꺾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 교회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기폭제가 됐다고 차이나소스(ChinaSource)의 브렌트 풀턴 대표는 말한다.

2011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100명이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다. 로잔운동이 그들을 위한 특별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연 것이다. 그리고 지난 가을, 중국 교회지도자 850여명이 중국 코앞 홍콩에서 자체 선교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100명도 안 되는 해외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서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글로벌기독교 연구센터(CSGC) 통계를 보면, 선교사 파송 상위 여섯 나라 가운데 공동 3위와 4위에 해당하는 프랑스와 스페인, 한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파송한 선교사 수가 2만~2만 1000명이다. 그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127,000)과 브라질(34,000) 두 나라 뿐이다(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1970-2020: SOCIETY, RELIGION, AND MISSION).

그러나 아무도 중국을 못 막는다. "중국은 숫자로 언젠가 승자가 될 것이다. 풀턴의 말이다. 풀턴은 최근에 '중국의 도시 그리스도인들(China's Urban Christians)'이라는 책을 냈다. "중국은 거대한 교회를 갖고 있다."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집계할 수는 없다. 퓨리서치센터는 2010년에 6,700만 명으로 추산했다. 비공식적인 회심자를 포함시키는 CSGC는 2010년에 1억600만 명이라는 수치를 발표했고, 2050년까지 중국 그리스도인 수는 3억 3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만하면, 2만 명은 힘든 목표가 아니다. 기독교 인구 100만명당 파송하는 선교사수의 세계 평균은 175명이라고 CSGC의 토드 존슨은 말했다.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려면, 중국이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 평균치는 1만7500명이 된다.

그렇지만 중국교회가 세운 2만 명은 그런 평균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중국 교회지도자들이 로버트 모리슨과 허드슨 테일러 시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역한 선교사



를 합산한 수치가 약 2만 명인 것이다.

"2만 명이라는 아이디어는 복음의 빛 곧 선교의 빛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10/40장 대변인이자 작가인 루이스 부시는 말했다. "중국교

회는 자신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루이스는 홍콩 선교대회에 강연자로 참석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혔을 때, 복음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유럽으로 갔고 결국 남북 아메

리카까지 갔다. 복음이 중국 곧 '땅 끝'에 도달했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곳은 없다고 부시는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끝, 곧 세계 선교 사역의 순환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거대한 목표는 1990년대에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1만 명의 선교사를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를 2000년에 달성했고, 다시 목표를 상향했다. 한국 교회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목표로 정했다.

중국 선교사 2만이 더해지면 '기독교의 중심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국가	수치
미국	127,000
브라질	34,000
프랑스, 스페인	21,000
한국, 이탈리아	20,000
영국	15,000
독일	14,000
인도	10,000

(자료 제공: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그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과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내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이 역학적 환경에서 나온 최초의 주요 선교운동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인이 체포되는 수치는 과거 30년 동안 줄어들이지만, 한 지방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교회 건물에서 수백 개의 십자가를 철거한 나라가 또한 중국이다. 중국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심하게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서 29위에 올라 있다.

중국정부는 선교는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운동이 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공인 삼자애국운동 교회에게는 교회 담을 넘어가는 전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 파송기관도 불법이다. 그래서 중국의 20개 가량의 파라체지 선교지원 기관들은 컨설팅 회사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풀턴은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 가능성이 중국인 목사 아브라함 쿠이의 용기를 꺾지는 못한다. 그는 홍콩 선교대회를 지휘했다. "다른 상황들을 맞닥뜨릴 각오가 되어있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그분이 시대와 시기를 바꾸시며, 그분이 왕들을 폐하고 세우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오

일으키지 않는다.

더하여, 중국인들은 중동 사람들 처럼 과거 식민지 경험과 개발도상국 경험을 했다. "우리는 중동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더 좋은 기초를 갖고 있다"고 쉬는 말했다.

그리고 티베트나 타지키스탄 같은 나라의 국경 근처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선교현장이기도 한 그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과 민족, 언어, 또는 종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내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국경을 넘어가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훈련지가 된다고 쉬는 말했다.

지정학적 시간도 무르익었다.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일대일로)을 통한 중국의 서진 정책은 중국과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기 위한 기반 시설과 교역로를 건설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초대교회와 로마의 도로망을 이용했듯이 중국이 확장해 나가는 길은 선교사들에게도 자연스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쉬는 말했다.

중국교회의 탄압 경험조차도 도움이 된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탄압을 받으면서 눈에 띄지 않게 가정교회를 세우고 회색시대를 통과하는 법을 배웠다고 풀턴은 말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교회가 주도하는 선교운동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더 잘 조직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문화를 넘나드는 선교사역을 하는 중국 선교사는 현재 겨우 10명 남짓이며, 대부분 2년이면 그만 둔다.

"열정적인 교회들이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더라도, 일단 그들이 그곳에 가면 파송한 교회로부터 오는 지원이 없다"고 풀턴은 말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사기를 바란다."

중국교회는 심대와 마찬가지로, 미숙하지만 열정이 넘친다고 그는 말했다. "상세한 계획은 못 세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활력이 중국교회에는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

기독교 탄압국가 29위 불구 2050년 기독교인 3억3천만 명 추산 중동선교 유리...식민지 경험, 개발도상국 경험, 지정학적 인접국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 분명하다"고 로잔 동아시아 국제 부이사 데이비드 로는 말했다.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비슷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독립심과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문을 여실 것이다."

중국 교회에는 복음전도를 위한 독특한 장점이 있다. 특히 중동에서 그렇다고 콜롬비아국제대학교의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 지치우 쉬가 말했다. 우선,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중동에서 야기하는 그런 적대감을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슬람교, 2070년 세계 '최대' 종교 떠올라

이슬람교가 2070년에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최대 종교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25일 보고서들 통해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했던 무슬림의 비율이 2050년에는 30%로 성장해 기독교의 비율과 거의 맞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의 성장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2070년 이후에 무슬림의 수는 기독교 인구를 넘어서 세계 최대 종교로 급부상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독교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총 22억 명의 신자를 둔 최대 종교이다. 퓨리서치센터는 "기독교도는 지금 22억 명에서 2050년 29억 명으로 늘어나는 반면 무슬림은 16억 명에서 28억 명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기독교도가 줄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도의 증가가 무슬림의 증가만큼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무슬림의 이러한 성장은 무슬림 신자가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슬림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15세 이하로 이들은 생애 평균 3.1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반면 기독교 여성은 생애 평균 갖는 아이도 2.7명으로 무슬림 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의 수가 2050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무신론자 등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여성은 생애 평균 1.7명의 아이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독교도의 중심도 유럽에서 2050년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사막 이남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퓨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기독교도의 거의 40%가 사하라사막 이남에서 살 것"이라며 "이곳 여성들이 평균 4.4명의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난민 돌봐야"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 기독교계의 입장이 도출됐다. 23일 미국 기독교 월간 '크리스천티티튜데이'에 따르면 복음주의자 100여명은 지난 1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빌리그레이엄센터에서 전 세계적 난민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난민을 돌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슬람교도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다.

성명은 난민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창 1:27)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작성했다. 성명에는 월드비전과 월드윌리프 등 기독교 구호기구(NGO)를 비롯해 교단 관계자, 신학교 교수, 목회자 등 65명이 서명했다.

성명은 "기독교인들은 전 지구적 난민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난민을 돌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난민들은 폭력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이지 적이 아니다. 그들은 희생자"라며 "기독교인들은 절망에 처한 난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명에 서명한 복음주의자들은 월드비전 리처드 스티븐스 회장, 월드 윌리프 스테판 바우만 회장 등 NGO 대표를 비롯해 웨슬리안교회 남침례교회 하나님의성회 관계자 등이다. 성명은 난민을 돌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을 두며, 기독교인은 난민에 대해 겸손과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명시했다.

성명은 유입되는 난민들 속에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했다. 성명은 "교회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안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난민 속에 끼여 해를 끼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수 탄생지 베들레헬 성탄인파 예년보단 '주춤'

팔레스타인 땅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베들레헬과 이스라엘에 성탄절 이브인 24일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AP통신과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예수 탄생지로 알려진 베들레헬에는 이날부터 성탄 행사가 시작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과 기독교도들이 운집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성가타리나 성당 앞 구유 광장(Manger Square)에는 여행객들이 빼곡히 모여들어 축제 분위기를 이뤘다.

광장에는 거대한 산타 모형을 세워졌으며 지역의 예수탄생교회(Church of the Nativity)에는 촛불을 켜 동굴이 마련돼 예수가 태어났다고 기록된 지점을 알렸다. 광장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쓴 최후탄 가스통 수습개로 장식한 '성탄 트리'도 등장해 눈길



이스라엘 당국은 성탄절을 맞아 서안에 콘크리트로 지은 분리장벽의 주요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 문으로 파우드 트왈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이끄는 성탄 축하 행렬이 베들레헬으로 진입했다. 트왈 총대주교는 베들레헬에 당도해 천천히 행진을 하며 거리에 들 어찬 인파, 팔레스타인 관리 등과도 성탄 인사사를 나눴다.

평소 베들레헬 출입을 통제하는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베들레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충돌 분위기에 관광객 수가 작년 7만여 명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라 바본 베들레헬 시장은 이번 주 베들레헬 시내의 호텔 예약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선교단체 CCC 창설 브라이트 여사 별세

국제 대학생 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공동 창설자인 보넷 브라이트(사진) 여사가 23일 오후 1시46분(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브라이트 여사는 남편인 고(故)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1951년 CCC를 설립,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가 되도록 도왔다.

1926년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난 브라이트 여사는 CCC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했다. 미국 국가기도의 날, 세계 기도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대표를 맡아왔다. 로잔세계복음화운동 총보기도 그룹에서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브라이트 여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설립한 라디오 프로그램 '위민 투데이(Women Today)'에 출연,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혁명적 능력"이라고 말했다.

브라이트 여사는 현대판 '잡인 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 꼽힌다. 김윤희 FWIA(Faith&Work Institute Asia) 대표는 "우아하고 온유하며 강인함과 지혜가 넘치는 '보너'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남편과 함께 자주 방문했고 198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교회기도대성회에서는 여성 의장으로서 참여했다. 세종대에서 명예박사 학위(1985)를 받았다.

브라이트 여사는 그동안 백혈병과 합병증을 앓아 오면서도 동료 간사들을 위로했다. 1주일 전까지 국제본부 글로벌 리더십 팀 사역자들과 전화통화하며 추억을 되새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예배는 내년 1월 8일 플로리다 주 올랜도제일장로교회에서 드린다.

을 끝냈다.

이스라엘 당국은 성탄절을 맞아 서안에 콘크리트로 지은 분리장벽의 주요 출입문을 개방했다. 이 문으로 파우드 트왈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이끄는 성탄 축하 행렬이 베들레헬으로 진입했다. 트왈 총대주교는 베들레헬에 당도해 천천히 행진을 하며 거리에 들 어찬 인파, 팔레스타인 관리 등과도 성탄 인사사를 나눴다.

평소 베들레헬 출입을 통제하는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베들레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충돌 분위기에 관광객 수가 작년 7만여 명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라 바본 베들레헬 시장은 이번 주 베들레헬 시내의 호텔 예약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선교단체 CCC 창설 브라이트 여사 별세

국제 대학생 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공동 창설자인 보넷 브라이트(사진) 여사가 23일 오후 1시46분(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브라이트 여사는 남편인 고(故)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1951년 CCC를 설립, 세계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가 되도록 도왔다.

1926년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난 브라이트 여사는 CCC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했다. 미국 국가기도의 날, 세계 기도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대표를 맡아왔다. 로잔세계복음화운동 총보기도 그룹에서는 의장으로 활동했다. 브라이트 여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설립한 라디오 프로그램 '위민 투데이(Women Today)'에 출연,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혁명적 능력"이라고 말했다.

브라이트 여사는 현대판 '잡인 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 꼽힌다. 김윤희 FWIA(Faith&Work Institute Asia) 대표는 "우아하고 온유하며 강인함과 지혜가 넘치는 '보너'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남편과 함께 자주 방문했고 198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교회기도대성회에서는 여성 의장으로서 참여했다. 세종대에서 명예박사 학위(1985)를 받았다.

브라이트 여사는 그동안 백혈병과 합병증을 앓아 오면서도 동료 간사들을 위로했다. 1주일 전까지 국제본부 글로벌 리더십 팀 사역자들과 전화통화하며 추억을 되새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모예배는 내년 1월 8일 플로리다 주 올랜도제일장로교회에서 드린다.

"다섯 아이를 뺏겼어요!" 기독교인 부모의 눈물

노르웨이 정부가 기독교 가정의 다섯 자녀가 기독교에 세뇌될 것을 우려해 양육권을 뺏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마리우스 보드나리우와 룯 보드나리우 부부는 지난 11월 16일 노르웨이의 어린이 보호 기관인 '바르네베르넷(Barnevernet)'에 생후 3개월 신생아부터 9살까지의 다섯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다.

이 부부가 자녀들을 빼앗기게 된 이유는 한 교사가 자녀들을 기독교로 세뇌시키는 과격한 기독교인 부부에 의해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섯 명의 아이들은 세 곳의 다른 가정으로 흩어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드나리우 부부는 지난 11월 27일 노르웨이 당국에 "아이들을 돌려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부에 거절당했다. 이후 부부는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였다.

이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까지 4만 4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리고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온 지지자들과 함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평화시위를 노르웨이 대사관 앞에서 진행해 오고 있다.

시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부부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기 위해 노력해온 평범한 기독교인들이다. 이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어떤 문서도 없다"고 지적하며 "노르웨이 정부는 당장 부부에게 돌려보내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노르웨이 외교관에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손으로 직접 쓴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는 운동도 벌였다. 보드나리우 부부의 페이스북에는 이미 스페인과 루마니아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오는 1월 8일에는 미국 워싱턴DC의 노르웨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부의 페이스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축복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어처구니없는 일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장벽을 하나님께서 부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정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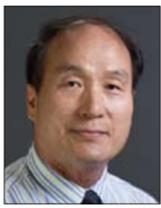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부부는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가정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하나님과 모든 이들로 인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기독교 가정의 다섯 자녀가 기독교에 세뇌될 것을 우려해 양육권을 뺏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마리우스 보드나리우와 룯 보드나리우 부부는 지난 11월 16일 노르웨이의 어린이 보호 기관인 '바르네베르넷(Barnevernet)'에 생후 3개월 신생아부터 9살까지의 다섯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다.



복음서 이야기 (6)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

제 6화 사도 베드로(Petrus: Rock)

1. 갈릴리 지방 어부출신, 아버지 이름은 요나(마16:17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 형제는 안드레.
2. 당시 어부는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은 아니었다. 어획량의 40%는 선주(그물소유)에게, 나머지 60%는 어부들에게 할당되었다. 물론 조업에 참여한 어부들은 생산 할당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3. 생선은 말리거나 저린 상태로 시장에 공급되었고, 값싼 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은 내륙 도시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다. 참고로, 로마에서는 생선이 고급식품으로 취급되었다. 그렇다고 생선을 잡는 어부들이 부유층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베드로는 가버나움의 집의 규모를 봐도 그 당시 중

- 산층에 속한 경제적 윤택함을 누렸다. 전승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현재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베드로의 집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있고, 팔각정을 세워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막1:29,30),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으며, 가버나움 지역 사역 중에 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다. 이런 점을 미루어보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헌신적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아버지 요나가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함께 고기 잡는 일꾼들도 부리고 있었다.
6. 그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중산층에 속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자 다 버리고 제자가 됨 급하고, 직선적이고, 열정적 성격의 소유자로 신앙의 양면 소유



게과(아람어로 바위)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Petrus)가 되고, 라틴어로는 페트루스(Petrus), 영어로는 피터(peter)가 된다.

7. 카톨릭교회에서는 마16:13-19(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요21:15-17(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계 제자로 삼으셨고, 베드로의 지위는 로마 교황으로 계승된다고 주장한다. 카톨릭 로마교황 연대기에 의하면 초대교황이 베드로이며, 현재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은 제266대 로마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등록되어 있다.



8. 물위를 걸음.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성전 미문에서 불구자를 고침(행3장), 빌라도 법정 뜰에서 예수를 세 번 부인함(눅22:54-62), 눅22:59에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 방언을 말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9. 급하고, 직선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신앙의 양면성(우리 모두의 경우와 같이)을 갖고 있었다.

10. (예) 예수의 메시아직을 고백한 자리에서 예수의 고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피력.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자리에서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함.

(끝) 이메일: parkss@grace.edu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요이1:1-2)찬178장

장로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보내며 특이한 문안을 합니다. 첫째, 은혜를 기원합니다. 모든 평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없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진리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은 은혜와 진리의 총합이었습니다(요1:14). 진리를 바탕으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긍휼을 빌었습니다. 긍휼은 모든 은혜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긍휼 안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가 일어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평강입니다. 은혜와 긍휼에서 나온 평강이 우리가 구하는 열매입니다. 세상의 안일과 구분되는 평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 받기를 힘씁시다.

화 진리 안에서의 사랑(요이1:4-9)찬319장

사도가 보인 그리스도인 생활의 자화상은 진리 안의 사랑입니다. 첫째,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그의 말씀인 계시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글자, 사상, 태도 그리고 모든 흐름을 진리로 따르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까닭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준을 절대 표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

다. 그때 진리가 도리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복된 세계로 나가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접합니다. 진리자체가 사랑이나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새롭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요이1:9-11)찬506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란 그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바로 거하려면?

첫째, 거짓교훈을 삼가야합니다(7). 당시 영지주의가 득세하던 때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했습니다. 진리의 분별력을 가져야만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사

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8-9). 엡2:20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머리들과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경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목 성경적 전달방법(요이1:12-13)찬241장

첫째, 종이와 먹을 사용하는 방법-과거에 진리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편지를 사용하던 것은 하나님이 내신 지혜였습니다. 둘째, 도판, 파피루스 그리고 양피지 위에 기록된 것이 인쇄술의 발달로 활자로 찍혀 전달되다가 지금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온 세상에 전해집니다. 우리의 전달수단은 손으로 적어 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대면해 말하는 방법-직접 대면해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인격대인격의 만남으

로 경건한 인격 속에 비쳐진 진리를 직접 보고 증거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란 교통신상으로서 증인이 자신의 인격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내면의 기쁨 충만이 그 목표여야 합니다. 진리의 교통은 영혼에 유익을 안겨줍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그 은혜가 진정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금 장로의 즐거움(요삼1-4)찬213장

교회의 생활의 본인 장로는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된 즐거움을 간증합니다. 첫째, 그는 영혼 위주의 삶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즐거움은 모두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 자체에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둘째, 영혼 위주의 행동을 누렸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일마다 참의미를 가지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때 그의 삶은 참 행복을 알게 됩니다. 셋째,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고 그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즐거움은 천국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신자가 복됩니다.

토 사도가 명한 대접(요삼1:5-6)찬440장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사도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대접을 해야 하나? 첫째, 나그네 된 형제를 대접해야 합니다(5). 복음 때문에 고생하는 형제를 대접함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하듯 대접해야 합니다(6).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는 명령을 따라 교회를 심실하게 대접(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

으시고 교회는 그 사랑으로 찬양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6). 셋째, 진리의 수고에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7-8).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핏방이 진리를 위한 수고이기때 그런 자를 대접하면 진리에 동참자가 됩니다. 이런 진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며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런 대접을 서로 힘씁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6년 1월 29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6년 1월 3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6년 2월 1일(월) - 3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p> <p>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충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Tel.(310)749-0577</p>	<p>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p>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p> <p>3960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p> <p>Tel. (213)215-8523 Fax.(213)977-1183</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p> <p>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p>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p> <p>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Tel.(347)753-4551</p>	<p>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 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p>퀵스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p>퀵스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